GQS
10월 째주

[순모임 교재]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예레미야애가 3:55-66

❖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 기도하는 이 시간(찬송 361장, 구 480장)
•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

선지자는 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과 포로가 되거나 피폐해진 유다 백성을 자신과 하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인칭 시점으로 유다 공동체의 슬픔을 노래하고, 유다 공동체의 간구를 읊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듯 보이는 것도 사실은 유다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선지자의 탄식은 유다 전체의 탄식이며 선지자의 간구는 유다 전체의 간구입니다.

❖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선지자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55-57절).
   1) 선지자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55절)?

   2) 선지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56, 57절)?

나눔1 선지자는 깊은 구덩이에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사회, 신앙 공동체에 있는 깊은 구덩이 같은 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2. 선지자가 주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58-66절).
   1) 선지자가 주께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58절)?

   2) 선지자가 주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59-62절)?

   3) 선지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까(63-66절)?

나눔2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원통함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참조. 눅 18:1-8).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신 경험을 나눠봅시다.

나눔3 대적의 심판을 간청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사적인 보복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할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깊은 구덩이에 빠져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 더욱 주께 부르짖는 믿음을 주소서.
공동체|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소서.